

전현무 "내년 5월 결혼"

등록 2026.04.19 23:29:35 | 수정 2026.04.19 23:38:41



[서울=뉴시스] 전현무. (사진 = KBS 2TV '사당귀' 캡처) 2026.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인연보다 '예식'의 형식을 앞세운 파격적인 결혼 계획을 전했다.

19일 방송된 KBS 2TV 예능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전현무는 예식장 예약 대란 소식에 "내년 5월 셋째 주 금요일"을 자신의 결혼일로 선언했다.

신부는 없지만 날짜부터 선점하겠다는 계산이다.

전현무는 "내 사전에 스몰 웨딩은 없다"며 완전 공개 형태의 대규모 호텔 예식을 예고했다.

"그간 뿌린 돈이 얼마데"라며 1000명 이상의 하객을 예상한 그는, 과거 5000여 명의 하객을 맞았던 박경림을 능가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호영의 아귀 해체 쇼와 박명수의 축가 등 가상의 예식 순서가 즉석에서 꾸러지며 웃음을 자아냈다.

전현무에게 결혼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 그간 쌓아온 인간관계의 총체적 결산이자 축제의 장인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